

Studio DAC:
아트 클래스 - 토크

경계: 곤충

일시

2026. 5. 27(수) 오후 7:30-9:00

장소

Studio DAC

두산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2026
3.-6.

두산인문극장
두산아트스쿨: 미술
Studio DAC: 아트 클래스

두산아트센터 교육 뉴스레터
Studio DAC POST



지난 뉴스레터 보기,
무료 구독하기

누구의 입장인가: 좋은 벌레, 나쁜 벌레, 이상한 벌레
성수연

벌레 좋아하세요?

낯선 질문이군요. “고양이 좋아하세요?”, “강아지를 더 좋아하세요?”, “새 좋아하세요?”와 같은 질문은 익숙한데, 다른 아닌 ‘벌레’를 좋아하느냐고 묻는 일은 흔하지 않네요. 차라리 “벌레 많이 무서워하세요?”라는 말이 더 익숙하고요. 벌레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싫어함’을 기본값으로 두고 있는 듯합니다. 오죽하면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충’등 과 같은 멸시 표현이 있을까요.

저는 벌레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벌레들에 대한 혐오가 거의 모든 벌레에 대한 혐오로 번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벌레 치고는 인간들에게 제법 인기가 있는 나비나 꿀벌도 싫었어요. 가늘고 꺾인 다리,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 버석해 보이는 표면 등의 특징,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벌레들과의 공통점이 발견된 이상 그 어떤 벌레도 애정을 갖고 바라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벌레를 연기한다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비인간 존재들이 등장하는 연극이 많아졌지요. 동물, 식물, 사물, 기계 등 비인간 존재가 인간성에 대한 은유나 상징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서 무대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만으로는 이 세계를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나 봅니다.

연극 <B BE BEE>(2023)는 인간 배우가 꿀벌 배역을 연기하려는 과정에서 만난 여러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1인극입니다. 무대에서 여러 비인간 배역을 연기하며 갖게 된 생각들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며 만든 연극이지요. 인간 아닌 존재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기 방법이 필요하다고 어렵듯이 느끼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접근으로는 도저히 연기할 수 없을 것 같은 ‘벌레’를 선택하고 연구하고 연기하며 ‘연기’와 ‘연극’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점검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발견하게 된 새로운 세계는 저의 삶을 서서히 바꾸었습니다.

생리학자 야콥 폰 웨스쿨(Jakob von Uexküll)이 만들어 낸 ‘움벨트(Umwelt)’라는 용어는 각 생명체가 지각하고 인지하는 고유한 경험 세계를 의미합니다. 꿀벌의 움벨트를 생각하며 바라본 세계는 인간의 사정으로 가득한 나로서 바라본 세계와는 사뭇 달랐어요. 꿀벌이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는 것들이 가득한 이 세계에 좀 더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곤충을 관찰하며 기록하고 있는 한 시민 과학자 선생님께서 부터 '알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꾸 보면 괜찮아지고, 알면 사랑하게 된다고. 저는 그에 덧붙여 사랑하면 움직일 수 있게 된다고 믿으며 퍼포먼스 <제1회 버그를 러브하기>(2025)를 만들었습니다. 퍼포먼스에 등장하는 '시민B'들은 말합니다.

“나는 인간 아닌 관객 앞에 선 기억을 나에게 심기로 합니다.”

인간이 하고 인간이 보는 '연극'에 인간 아닌 무수한 존재들의 경이로운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담아내야 할까요?

이번 아트 클래스에서는 인간 아닌 존재를 우리의 연극과 삶에 제대로 등장시키기 위한 여러 질문을 나눕니다. 어쩌면 이미 등장해 있었던 그들을 비로소 알아차리기 위한 질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수연(배우, 창작자)

다양한 형식의 공연예술에서 창작과 연출 및 실연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간중심적 사고를 성찰하는 방식의 비인간 연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시대를 아카이빙하고 전달하는 몸으로서의 배우의 일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다. 연극에서도 삶에서도 경계를 허물고 중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여러 연습을 하는 중이다. 최근 무대 위와 아래의 사람들을 기록한 인터뷰집 『무엇을, 어떻게, 왜』(2025, 북트리거)를 출간했다.

작/연출/출연 <주소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B BE BEE > 외

기획/연출/퍼포먼스 <제1회 버그를 러브하기>

창작/출연 <섬이야기><러브 스토리><비포 애프터> 외

출연 <꿈의 연극><액트리스원-국민로봇배우1호> 외

전시/퍼포먼스 <박동 节奏><연극의 연습, 연습의 전시-탈인간 편> 외